

Living the Lotus 1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32



Risho Kosei-kai of Oklahoma

Living the Lotus
Vol. 232 (January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쿄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아시스」가 되자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입정교성회 회장



정월이라는 이름의 「출발역(出發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새해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며 일제히 새로운 시작의 테이프를 끊는 정월은, 말하자면 한 해의 ‘출발역’입니다. 또한 정월에는 지난 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짐도 새롭게 하고 심기일전(心氣一轉)을 꾀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사이토 모키치(齋藤茂吉:1882-1953)가 ‘새해 초에 마음속에 담아둔 한 가지를 계속 마음에 두고 일년을 지내자’고 읊었듯이, 이 출발역에서 일 년에 걸친 여행 준비를 제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속 마음 속에 담고 지내자’고 다짐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덕분에 미수(米壽:우리 나이로 88세)를 맞이하였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장과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세라고 한다면, 미수 또한 인생의 ‘정차역’중 하나인 통과점이며, 이 언덕을 넘으면 다시 다음 언덕을 목표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또 항상 정진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전진·성장을 해 나가고자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변하지 않는 저의 ‘일 년의 계획’입니다만, 근래에 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람 만들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푸른 물의 혹성, 지구의 환경이 매년 악화해 가고 있고, 그곳에 사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을 키우는 것을 자신의 ‘계획’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이 가슴 속 깊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지구를 미래에 남길 책무가 우리들에게

는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나무를 심는다

본 회의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이전에 저는 ‘사람을 심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불교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람들은 물론, 먼 세계의 사람들도 행복해졌으면, 구제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온 힘을 기울이는, 배려심을 가진 사람-보살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히 쉬게 해주며 안심을 주는, 즉 ‘오아시스’와 같은 마음을 지닌 보살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 승가(동신자)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탄생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 주는 장소로 확산되어 갈 것을, 저는 이상으로 여기며 마음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 회의 발전이 목적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 미래에 대한 절실한 위기감에서 오는 이상인 것입니다.

먼 옛날, 석존께 살의를 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가 탄생한 이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변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욕망과 폭력은 더욱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끝이 없는 것만큼 ‘이상(理想)도 무한해야 한다’고 선인(先人)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곳에 진보는 없으며,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 그 자체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 그 자체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가족 안에서 한 그루의 오아시스가 되고, 내 가정이 이웃 사람들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에서부터 그것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다른 생명을 죽이는 ‘살생’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 그러한 자비의 실천을 통하여 하루하루 생명의 고귀함과 자타일체의 마음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은 또한 이타(利他)로 이어지며,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한 그루의 풀을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이 좋게, 그리고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개조님께서 ‘뒤를 부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미래로 이어지는 ‘미래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성』 2025년1월호)



Spiritual Journey

불·법·승가의 힘을 버팀목으로 보살도를 걸어간다
—— 교회장 역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배움

오클라호마 전교회장 크리스·라도스

부처님 개조님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입정교성회 교회장으로서의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배운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법에 몸을 바쳐 가르침을 설하여 널리 알리는 ‘법사(法師)’의 곁에는, 반드시 그 노력을 도와주며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탱 받으며 역할에 임해 왔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정진의 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배움은 ‘불도를 걷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의 페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원 중에는 가르침의 실천과 성장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신해품’에 설해진 궁자가 스스로 불자임을 깨달을 때까지 2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각자 알맞은 성장 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인내와 방편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배움은 ‘교성회 회원분들은 모두 저에게 있어 소중한 선생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은 저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태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장인 제가 먼저 내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여러가지 일에서 제가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네 번째 배움은 ‘인생에서 법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안 것입니다. 법의 습학과 실천은 생애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고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



작년11월18일, 퇴임 교회장님을 대표로 법륜각에서 설법을 하는 크리스 라도소 교회장님

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본존님과 한 회원 사이에 제가 앉아 있는 모습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회원은 저에게 고(苦)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을 뺀 부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회원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부처님과 회원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매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하나의 파이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에 의해 저는, 저의 자기 중심적인 껍데기를 버리고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받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법(法)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분

Spiritual Journey

들과 함께 나아가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부처(佛)의 힘, 법(法)의 힘, 그리고 승(僧승가)의 힘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부처의 힘'의 한 예로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원본불과 입정교성회가, 미국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기독교도인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에, 즉 일본의 불교단체로서는 그야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장소에 도량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법(法)의 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50년 이상이나 원망하며 살아온 오클라호마 교성회의 회원에 대한 일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그녀는 한 번도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 빈 적이 없었으며, 산소에는 비석 하나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가르침)의 실천을 하기 시작한 그녀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 어머니에게 알맞은 묘비를 세워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코올 의존증이었기 때문에, 어린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쫓기며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왔습니다. 거기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아직 어릴 때 그녀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출근하던 중에 자동차가 통제로 다리에서 굴러 떨어져 버려서,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가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찾기 위해 그녀가 산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산소 관리인이 어머니의 사고에 관한 경찰의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어머니의 차가 다리 위에 들어섰을 때, 역주행으로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는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가 다리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역주행차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 결과 상대차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는 어머니를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품어왔던 슬픔도 조금 치유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입정교성회를 통해서 만난 법과,



오클라호마 교성회 승가분들과(왼쪽에서 두 번째)



오클라호마 교성회 초대 교회장님인
히루데브란드 야스코씨

선조공양의 실천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승(僧승가)의 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죽은 오빠의 법요에서 스스로 도사 역할을 청했던 회원에 대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공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 그녀는 도사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안정되어 다시 도사역할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다른 회원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이어받아 그대로 도사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체험이 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감사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보물들은 입정교성회의 관대함과 친절함이 저에게 준 것입니다. 개조님, 협조님, 회장선생님, 코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일본을 여행했을 때, 일본의 전통적인 정원 몇 군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원들은 모두 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저마다 깊은 사상에 근거하여 정성 들여 만들어졌으며, 확실하게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어느 정원에선 설계의 일부로서, 큰 연못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찾은 사람들이 연못 건너편 언덕으로 건너가, 새로운 각도에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판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저는 판석과 불도수행에는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인도

Spiritual Journey

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이, 불도수행을 걸어가는 저를 위해서 ‘관석’을 놓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 그들은 살짝 제 뒤를 밀어주며,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읽으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두렵다고 느껴졌던 때도 있었지만, 선배분들도 똑같이 그 앞의 선배분들에게 배우고 인도되어 왔다는 것을 안 저는, 그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받고 깨달은 것은, 저를 키워 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지도 스타일을 저 또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며, 각자의 능력, 실천력, 정진의 깊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이 **법의 습학과** 실천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디딤돌을 보여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야스코 힐데부란드 전 교회장님과 함께, 입정교성회 오클라호마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힘쓴 훌륭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공동작업을 ‘상승효과’라는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야스코 교회장님과 함께 지내온 나날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도량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어느 때에는 저의 미국

식 방법을 신뢰해주시고, 또 어느 때에는 제 생각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생각하도록 상냥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보다 넓은 시야’를 보여 주신 그녀를, 저는 항상 신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잘 지내십니까?’하고 인사를 받으면 ‘덕분에 잘 지냅니다’고 대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위 사람들과 자연과의 연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훌륭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며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용히 집중시키면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순간 생기는 ‘생명’의 선물을 깨닫는 마음의 눈이 있다면, 감사는 자연히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기쁨이 넘쳤던 체험입니다.

입정교성회 오클라호마 교회에 새로운 교회장님인 크리스 피터즈를 맞이하여 제 마음은 편안함과 충족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지혜와 정열을 겸비한 리더입니다. 그가 이 가르침의 대도(大道)를 마음껏,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을 염해 마지 않습니다.

입정교성회의 ‘세계승가’를 위해서,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예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두며, 앞으로도 법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 개조님 감사합니다.

회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작년 12월7일에 행해진 교회장취임식에서 새로운 교회장님인 크리스 피터즈의 취임을 축하하는 라도소 전교회장님



부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려져서 살고 있는 기쁨을 전한다

입정교성회 개조님 니와노 니치코(庭野日敬)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독경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경전을 독송하면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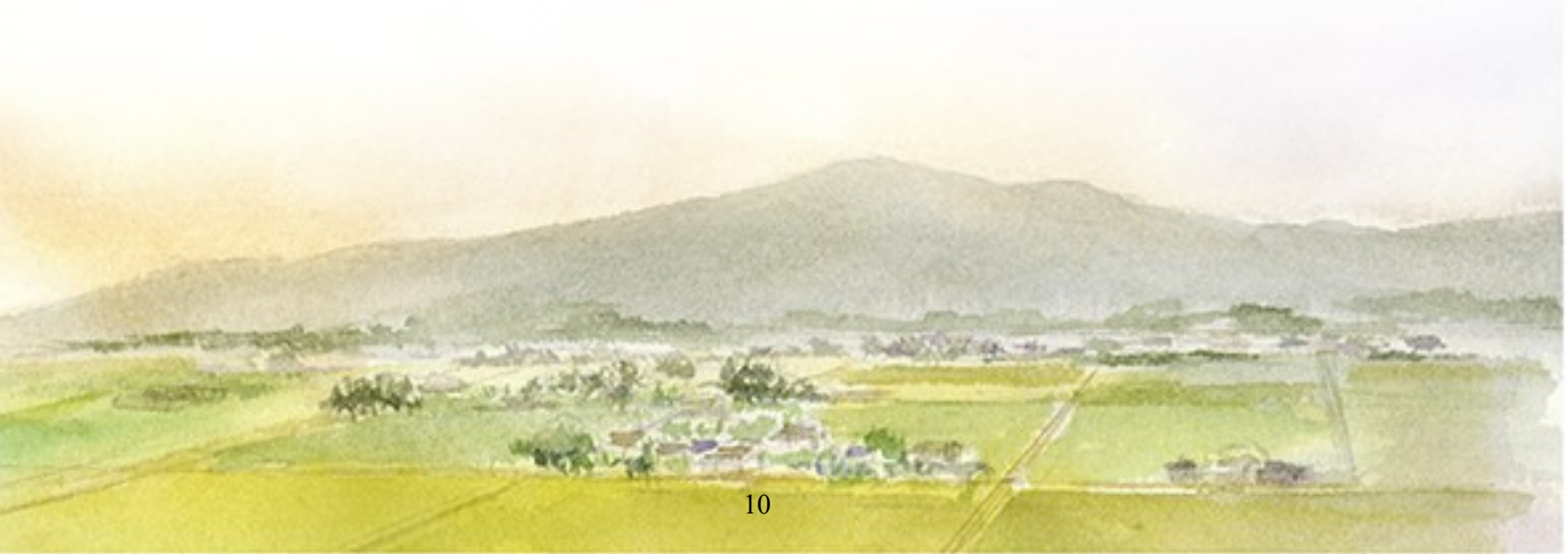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기쁨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화한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려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어요.」라고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우리들의 역할이며 또 수행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각 지역의 교성회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많은 회원들이 기쁘게 맞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시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있다」고 하는 감격으로 마음이 벅칩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기쁨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도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기쁨을 소리 높여 주변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와노 닛쿄 범화집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Donate-a-Meal Movement

한 끼 바치기 운동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입정교성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한 끼 바치기 운동’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두 달에 한번 씩, 이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끼 바치기 운동」이란

‘한 끼 바치기 운동’이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재해, 빈곤 등으로 피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돈, 예를 들면 식사와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돈에서 헌금을 하여, 지원활동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즉, 서로 아픔과 고통, 마음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먹을 일에 걱정이 없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행복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한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끼」를 테마로

한끼 운동의 실천을 통해 느끼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행동했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에 초점을 맞추어, 내 안에 있는 상냥함과 배려심이 키워지는 실감을 소중히 합니다.

‘식사를 거른다’는 것을 기본으로 실천하면서, 나만의, 나 다운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식사하는 것에만 한하지 않고 나의 취미나 기호품(커피, 담배 등)에 쓰는 돈을, 조금 참고 헌금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헌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실천을 하는 것, 다양한 실천 방법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학교 급식사업

매일, 맛있는 옥수수과 쿡, 죽을 먹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는,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힘을 낼 수 있으며,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벤슨(13세)

한 끼 바치기 운동 세 가지 정신



식사나 취미 활동을 절약함으로써, 빈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괴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생명을 주시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바람을 더욱 높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또한 탐욕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소육지족의 마음을 깊이 합니다.

한끼 실천을 할 때에는 ‘기도의 말씀’을 제창하며 묵념을 드립니다.

기도의 말씀

이 지구가 평화로워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배려하기를 먼저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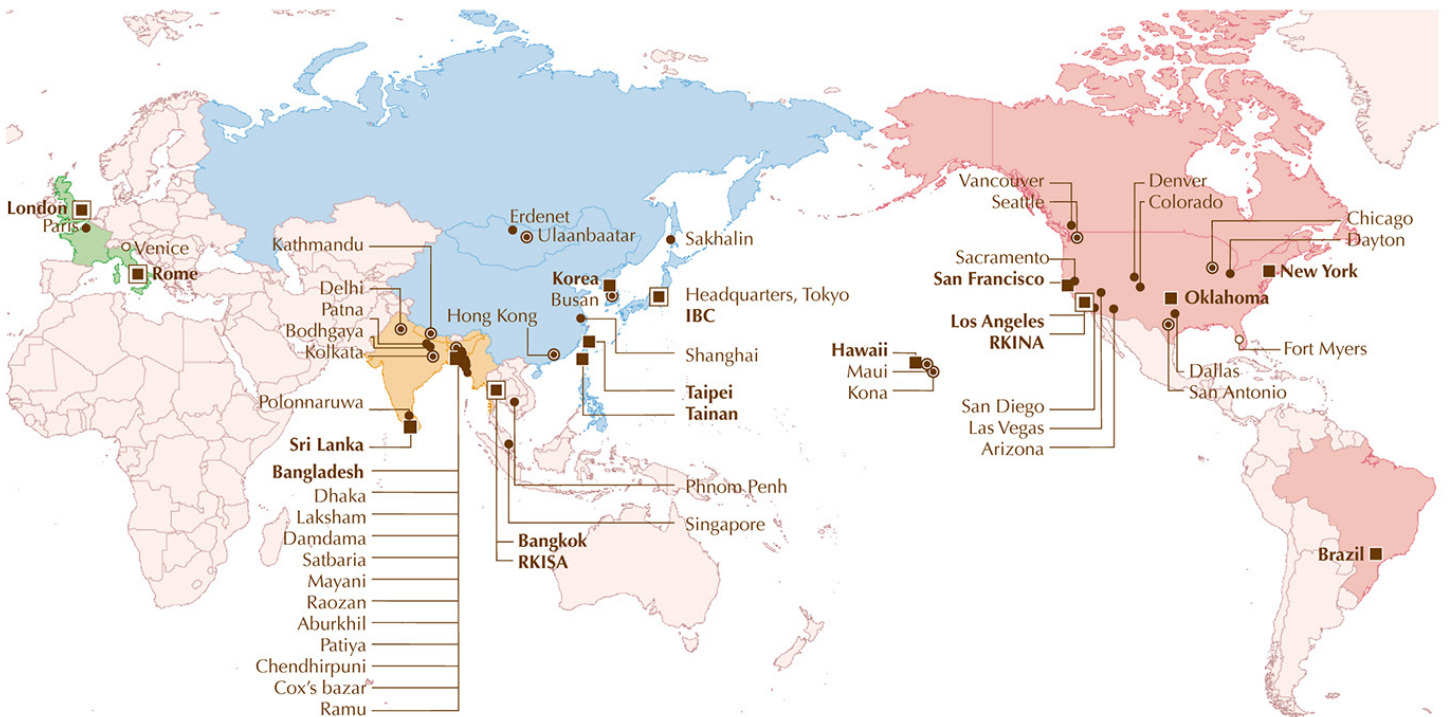
국제WFP의 학교급식 지원으로, 영양 강화 비스킷을 받은 아이들(미얀마)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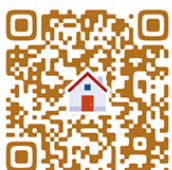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